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감성 소비' 젊은 소비층의 새 트렌드로

블라인드 박스(盲盒)를 살짝 흔들며 무게를 가늠해보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본다. 박스 안의 내용물을 추측하며 하나를 고른 대학생 서우희(胥雨曦)는 "한정판을 뽑으면 기분이 정말 좋고 뿌듯하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주말마다 '굿즈(周边) 샵'을 찾아 블라인드 박스를 열어보는 일은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이다.



지난달 8일, 상담종합보세구에 위치한 호남상니삼적(桑尼森迪) 완구제조회사에 전시된 '나타' 굿즈 / 신화넷

'행복'을 위한 소비는 일부 젊은이들의 일상이 되었다. 사무실 책상을 장식한 아트토이(艺术玩具) 블라인드 박스와 애니메이션 피규어(公仔), 고인 상담과 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젊은이들의 정서를 어루만지며 소소한 기쁨을 주고 있다.

이렇게 심리적 체면을 중시하고 즐거움과 자기만족을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감성 소비'라고 한다. 중국소비자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서적 해소는 젊은이들의 소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중경시 유중구 해방비 상권에 위치한 S95 초차원센터 쇼핑몰. 여러 대형 '굿즈샵'에 진열된 각양각색의 굿즈가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차원 의상을 입고 각자의 '굿즈 쇼핑' 심득을 교류한다.

중경공상대학 대학생심리건강교육상담센터 심리상담사 시수매(施秀梅)는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젊은이들은 소비를 통해 얻는 감정적 공감 및 자기까지 표현에 관심을 더 많이

기술이고 있다며 '감성 소비' 역시 이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하나의 출구가 됐다고 짚었다.

"우리는 지적재산권(IP)화 특색제품은 물론 소비자들이 화장을 하고 촬영할 수 있는 전용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오프라인 커뮤니티 상호작용 활동도 펼치고 있다." S95 초차원센터 사장 겸 제품책임자 진홍(陈鑫)은 음력설 기간 S95 초차원센터의 하루 최대 방문객수가 6만 5,000명(연인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더 희귀하고 더 정교하며 더 유명한 IP 굿즈일수록 인기가 많다."

강소성 남경시에 거주하는 '00후' 소호(小胡)는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인쇄된 '포토카드' 수집광

이다. 그는 "수집한 카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피로가 풀린다."고 말했다.

몬스터 트라이브(怪物部落) 공동창립자 양정봉(杨征蓬)은 "감성 소비" 열풍은 자신의 감정을 과감히 직시하고 표현하며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뚜렷한 경향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서남지역에서 몬스터 트라이브는 도시 청년들의 생활방식 향상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이 심신건강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커뮤니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 나라 소비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감성 소비'의 핵심 요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감성 가치를 창출한다." 양정봉은 몬스터 트라이브가 차별화된 행사 콘텐츠를 통해 젊은이들을 위한 감성 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매달 약 500회의 행사를 개최하는데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시맨엔드웨이크펠드(戴德梁行)중경회사 상임부 책임자 당정예(唐正艺)는 "감성 소비"가 젊은이들의 소비 습관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새로운 씨나리오와 산업종을 탄생시키고 있다."면서 "감성 소비"로 인해 기존의 쇼핑센터나 백화점과 차별화된 체험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상업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경 몰입형 인터랙티브 레스토랑(互动沉浸式餐厅)인 룽봉정상·회연(龙凤呈祥·禧筵)에서는 공연자들이 문화적인 무대에서 춤을 추고 관객들이 그 아래에서 공연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긴다.

"공연이 끝나면 손님들은 옷을 갈아입고 공연자와 직접 소통할 수도 있다." 레스토랑의 공동 운영자인 반선(盤璇)은 이러한 몰입형 문화 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문화에 대한 젊은이들의 탐구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제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기술 등으로 무장한 '감성 소비'가 몰입감과 문화적 색채를 발판 삼아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다.

## 국가통계국 : 1월—2월 실업률 5.3%



지난달 7일, 복건성 복주대학에서 열린 2025년 봄철 대학졸업생 채용 행사 현장. / 신화넷

음력설 연휴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취업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전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2월 도시(城镇) 실업률은 5.3%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월 도시 실업률은 5.4%를 기록해 1월의 5.2%보다 높았다.

국가통계국 대변인 부루휘(付凌晖)는 일반적으로 음력설 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1월—2월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수 진작, 고품질 발전 촉진,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신종 분야 및 비즈니스 모델 육성 등 정부의 노력이 일자리 증가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도 취업 안정과 확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전 발표된 정부사업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도시 실업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설정하고 1,200만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서장, 지난 10년간 타지역 송출 청정에너지 158 억키로와트시 이상

지난 2015년부터 2024년말까지 서장자치구가 158억 1,400만키로와트시의 청정에너지를 외부로 송출했다고 국망(国网) 서장전력회사가 발표했다.

그 결과 표준석탄 사용량 약 485만톤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1,358만톤 감축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말 기준 서장에서 생산된 전력의 99% 이상이 청정에너지로

전국적으로 청정에너지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풍부한 태양열과 풍력 자원을 자랑하는 서장은 2015년부터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송출하고 있다.

현재 서장은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지역·풍력·태양열 발전을 아우르는 종합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휘

## 1월—2월 상품무역 수출입 1,415 억원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

최근 수년간 안휘성 기업의 해외 무역·투자 협력이 꾸준히 심화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안휘성내 수출입 실적에 있는 기업은 1만 3,000개 이상이며 1월—2월 상품무역 수출입 규모는 1,415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안휘성상무청 청장 손동해(孙东海)는 지난해 안휘성 상품무역 수

출입 규모는 8,648억 원, 실제 대외 투자는 26억 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올 1월—2월 안휘의 대외투자는 5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확대됐다.

한편 안휘성은 우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 태양광·에너지 저장, 가전 제품 및 가구 등 우수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개방형 산업 도킹 행사를 개최해 중경 자동차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태양광·에너지 저장 기업의 해외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 신화넷

## 상해로 몰리는 글로벌 투자 행렬... 지난해 1조원 넘게 류입

상해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일전 상해시경제정보화위원회 주임 장영(张英)은 2025 상해글로벌 투자총진대회의 총체적 배치에 대해 소개 시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상해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업적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상해에 유치된 1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

는 1,925개, 총투자액은 1조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신홍산업, 미래산업 및 핵심 우수 프로젝트가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은 중소기업 서비스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시(市)급 전정특신(专精特新) 중 문화·정밀화·특색화·잠신화) 중

소기업은 1만 2,000개, 국가 전정특신 소기업은 900개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는 '3키로미터 중소기업 서비스권'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신홍산업 및 미래산업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등급·류형별 맞춤형 정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상해에서

진행중인 투자 프로젝트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업 투자 규모는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수준으로 상해의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 신화넷

## 대련자동차부두, 자동차 수출 교두보 역할 '톡톡'

수만대의 상품차가 가지런히 주차된 룽닝항구그룹 대련자동차부두 야적장. 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들이 줄지어 자동차 전용 로선에 오른다. 대련자동차부두는 올해 음력설 연휴 기간에만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난 9,000대 이상의 상품차를 처리했다.

"헤드라이트 부분이 바다를 향하고 있는 차량들은 해외 및 국내 화동·화남 지역으로 수출된다." 룽닝항만그룹 대련자동차부두회사 사장조리 김 조성은 완성차공장을 보유한 제1자동차그룹(FAW), 화신보마(华晨宝

마·BMW), 체리(奇瑞·Chery) 등 동북지역 자동차기업들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대련자동차부두는 자동차 수출 가속화의 발전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품차 수출량, 차종, 운송시간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작업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차량 집결·정비·보관·선적 등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동북지역의 대외무역 상품차 수출입 거점 항만이자 환적 허브인 대련자동차부두는 상품차의 국제물류 서비스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기존의 유럽, 북미 항로를 기반으로 동남아, 페르시아만 등 수출 항로를 잇달아 개설하여 항로 네트워크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다.

한편 대련자동차부두 린근에 위치한 대련대요만(大窑湾)보세물류센터(B형)는 지난해말 검수를 통과했다. 동북지역의 완성차 및 부품 수출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이곳에는 자동차 야적장, 물류창고, 보세생태서비스센터 등 다양한 기능구역이 마련되었다. 1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으며 기업의 보세창고, 보세구내 세금 환급, 크로스보더 물류 등 종합적인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중국(료녕)자유무역시험구 대련구역의 한 관계자는 대련대요만보세물류센터(B형)가 '완성차+통상구+보세' 기능의 결합 우위를 발휘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북 자동차 수출 종합 서비스 거점으로 구축될 것이라면 서 동북지역 자동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 ▶ 1면에서

#### 진실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기자 : 민영기업간담회에서의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각계의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요구를 관철, 시달하고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한 길림성의 사업 사료와 구체적 조치는 무엇인가?

황강 : 새시대, 새 로정에서 민영경제는 발전 전망이 광활하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민영경제 발전 촉진 정책조치들을 탄탄히 시달하고 민영기업들과 생각을 같이하고 입장을 같이하며

같이 일함으로써 길림의 위풍을 다시 떨치고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첫째, 개혁에 힘을 내고 속박을 풀고 부담을 줄이며 장벽을 허물고 장애를 제거할 것이다. 동북의 전면 진흥을 위해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민영경제는 개혁에서 시작해 개혁으로 성공해야 하며 반드시 개혁에 의지해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개혁으로 막힌 점을 뚫고 각종 은폐된 진입 장벽을 살살이 점검하며 입찰·융자·평가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통일된 규범, 정보 공유, 기능이 보완된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을 건설할 것이다. 생산요소의 법에 따른 평등한 사용과 공정한 시장경쟁 참여의 각종 장애를 과감히 타파하여 민영기업들

이 대담하게 발전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혁으로 난제를 풀어 기업 관련 문제의 고효율 폐쇄형 해결기제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중소기업·개체공상업자들에게 대한 체불 채무 상환을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간의 정기적인 연결을 지속적으로 조직하며 정부성 응답보급기관의 자본금 보충·위험 보상·보험료 보조 등 정책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민영경제 발전 전문 기금 설립을 모색해 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고 융자 비용이 높은 문제 해결에 힘쓰고 민영경제 발전 동력을 강화할 것이다. 개혁으로 개방을 촉진하고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다그쳐 건설하며 지역 개방 전략을 시행하고 국제시장에 신속히 융합되도록 민영기업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제품의 해외 진

출을 도울 것이다.

둘째, 봉사에 힘을 내고 생태를 최적화하며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민영기업은 '한집식구'이기에 민영기업의 발전을 돕는 것 역시 '집안 일'이다. 우리는 봉사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봉사형 정부와 봉사형 기관 건설을 크게 추진하고 정부와 기업간의 친정관계를 한층 더 구축할 것이다. 평평정대하게 민영기업인들과 교류하고 당당하게 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하며 기업을 위한 '복무원' 역할과 난제를 해결해주는 '처가집'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고 일이 없으면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정책 시달 기제를 보완하고 국가의 기업 혜택 정책이라는 중대한 기회를 잡아 분류별 지도와 정밀한 정책 시행을

강화할 것이다. 정책 집행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구호만 높고 행동은 부족한 현상을 단호히 피하며 진정으로 정책 혜택을 현실 생산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법치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길림성민영경제촉진조례>를 연구·제정하고 <길림성영양환경최적화조례>를 개정하며 기업에 관련된 무분별한 검사, 집법과 벌금, 수급 등에 대한 정돈활동을 확실하게 전개하여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다.

셋째, 계획 수립에 힘을 내고 청사진을 그려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올해는 '14·5'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15·5'계획의 첫해이다. 우리는 계획으로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민영기업인들의 의견과 제안을 충분히 청취하며 앞으로 5년간

의 민영경제 발전목표·중점업무·보장 조치를 깊이있게 연구, 제정해 민영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정성껏 그려나갈 것이다. 계획으로 민영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민영기업들이 분업을 지키고 실업을 강화하도록 격려 지원하며 자주 혁신을 강화하고 발전 방식을 전환하며 인공지능·신형 디스플레이·저공방비 등 미래산업을 기획하고 배지해 기업의 품질과 이익과 핵심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할 것이다. 계획으로 민영기업인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리본 신념 교육을 강화하며 기업가정신을 발양하고 인재대오 건설을 강화해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들이 새시대, 새 로정에서 길림 전면 진흥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격려 지원하고 인도할 것이다.

/ 신화사